

유희적 저항 游戏般的抵抗

1. 전시개요

제 목 : 유희적 저항 (游般的抵抗, Cynical Resistance)

일 시 : 2012. 6. 29(금) - 8. 12(일)

장 소 : 학교재 갤러리 전관

작 가 : 루쥙위엔, 마치우샤, 예링한, 짱쿤쿤, 투홍타오, 판지엔, 하오량, 황징위엔

기 획 : 윤재갑 (큐레이터)

출품작 : 60여 점 (회화 52점, 조각·설치 4점, 영상 3점)

2. 전시내용

학교재 갤러리는 6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으며 앞으로의 중국미술을 이끌어나갈 차세대주자로 꼽히는 여덟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기획전 <유희적 저항>을 개최한다. 중국현대미술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획자로 평가받는 윤재갑 큐레이터가 기획한 본 전시에는 루쥙위엔, 마치우샤, 예링한, 짱쿤쿤, 투홍타오, 판지엔, 하오량, 황징위엔 등이 참여하여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1970,80년대에 태어난 이들은 중국의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적 격변기에 유년을 보냈다. 이들은 '차이나 아방가르드'로 대표되는 기존 세대와 다르게, 체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의 거대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운 태도를 보인다. 그런 까닭에 혹자는 이들이 지극히 사변적이고 유약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윤재갑 기획자는 '이들이 그들의 선배보다 덜 정치적이라는 말은 편견'이라고 한 문화평론가 왕샤오밍의 말을 빌려 '겉보기에는 유약하고 진지함이라고는 없는 유희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이들이 사회와 인간에 대해 얼마나 깊고 격렬한 마음을 담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다만 그 범위가 좁아지고 방법이 달라졌을 뿐, 그들 역시 작업을 통해 절규하는 세상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선택한 8명의 젊은 작가들은 세계미술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차이나 아방가르드' 이후, 후배세대들이 선배들의 성과와 과오를 어떻게 극복하고 자기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중국미술의 현주소를 담고 있는 <유희적 저항>은 오늘의 중국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 기획의 글

유희적 저항

윤재갑(큐레이터)

러시아 미래파 시인과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전위적 예술이 소비에트사회의 건설과 정신적으로 일맥상통하며 혁명의 완성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문화적 아방가르드와 정치, 경제적 혁명이 평행적이고 상호보완적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기대와 확신은 이미 러시아 혁명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고 결국 스탈린 집권이후 러시아 미래파는 완전한 좌절과 몰락의 운명을 맞게 된다.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예술의 관계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1949년에 중국 사회는 수 천 년 간 지속된 유교와 중국화의 완고한 전통으로부터 마오이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의 집단적 개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봉건왕조라는 극우의 해체와 주검위에서 출발한 중국 사회의 첫 번째 집단적 개종은 문화대혁명이라는 극좌 전체주의로 귀결되었고, 결국 1989년의 천안문 사태로 치달아 파국을 맞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예술적 전위의 입장들은 소비에트에서처럼 철저히 봉쇄되었다. 거대담론과 이데올로기의 폭압 속에서 작가들은 눈뜬장님이자 병어리였을 뿐이다.

중국 사회의 두 번째 집단적 개종은 1989년에 발생했다. 89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전지구화, 그리고 같은 해에 발생한 중국 내부의 천안문 사태라는 두 사건은 중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다. 공교롭게도 서구 사회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같은 해에 연이어 발생한 천안문사태는 중국 사회주의 정권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들었을 뿐 만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사회주의의 죽음에 대한 완벽한 확인사살이었다. 세계적 차원과 중국 국내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회주의의 주검위에서 새로운 악의 꽃이 피었다. 중국 공산당이 독점한 국영자본주의가 중국 전역에서 공공연히 실험되고 인민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간 것이다. '세계(자본주의)로 하여금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라'라는 구호로 시작된 1992년 덩소평의 '남순'은 중국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의 집단적 개종을 알리는 새로운 '대장

.정'의 비장한 출발점이었다.

그것은 세계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 정치경제적 측면과 도덕성 모두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제 중국 공산당마저 자본주의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는 잉여가치를 생산해야만 존재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한 잉여가치를 놓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상호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산당이 독점한 국영자본은 블랙홀처럼 13억 중국 인민의 잉여가치를 빨아들였고 부의 편중은 짧은 시간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심화되었다. 부정과 부패는 일상화되고 일반화되었다. 중국이 다시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중국 공산당의 국영자본주의로의 두 번째 집단적 개종 시기에 이루어진 문화 예술방면의 변화들을 흔히 '차이나 아방가르드'로 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은 여러 가지 이유

에서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들을 ‘차이나 아방가르드’로 부르는 것은 일종의 포장된 허위의식처럼 보여 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통과 문화는 지난 세기 동안 매우 난폭한 단절의 계기들을 경험해 왔지만 성공한 혁명이라기보다는 실패한 자포자기에 가깝다는 얘기다. 그래서 혁명이라기보다는 집단적 개종에 가까울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작가들은 병어리나 귀머거리였을 뿐이고, 자본주의로의 두 번째 개종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악의 꽃’ 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차이나 아방가르드’는 오히려 새로운 지배층의 유력한 조력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중국미술시장이 최근 십여 년간 세계금융자본의 유입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예술 생산은 시장 논리에 한층 취약해졌고, 극소수의 작가들은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차이나 아방가르드’의 주요 작가는 자본의 ‘4대 천왕’이 되었다. 그들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화석화된 형식처럼, 그들의 작업도 저항을 멈추고 자기복제의 공허한 메아리만 무한 반복한다. 그러는 동안 거대 기업들이 미술품 투자에 열을 올리고, 스폰서링이나 아트마케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을 이용하고, 그 존재 양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작하는 상황 또한 일반화되었다. 자본주의는 현대 예술이 생산되고 수용되는 전 과정을 지배한다. 차이나 아방가르드는 자의견 타의견, 정확하게 이 상황에 처한 것이다.

문화영역에서 부르디외가 일종의 ‘소화’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것들, 과거를 부정하고 권위를 전복시키려는 모든 새로운 시도들을 무력화시키면서, 끝내 모든 ‘전위’들을 그들의 체제 안으로 포섭하고야마는 이 무시무시한 괴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나?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유토피아적 공동체도 몰락했고, 그와 동시에 그 체제의 수호자들이 애써 파괴하려던 예술적 전위도 함께 무너졌다. 젊은 작가들이 느끼는 절망이 여기에 있다. 그들의 선배들이 행한 이데올로기적 저항이나 상업주의에 대한 저항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을 낯낱이 목도한 것이다. 부르디외의 비장한 중얼거림.... ‘오랜 진화의 끝에, 또 다시 반복되는 지금의 퇴보 속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는 말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눈앞의 현실로 존재하는 자본주의 대중문화 한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의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벤야민의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초현실주의 미학에서 이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어떤 선형적인 거대담론에 비껴서있음으로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혁명이나 개량이나, 엘리트주의냐 대중주의냐 등의 근본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의 논의들에서 자유롭고, 구체적인 상황들에 주저 없이 즉각적으로 대처한다. 문학평론가 왕샤오밍은 이들 젊은 세대를 이렇게 대변하고 위로한다. ‘이들이 그들의 선배보다 덜 정치적이라는 말은 편견이다....겉보기엔 유약하고 진지함이라고는 없는 ‘유희적’일 뿐이지만 거기엔 사회와 인간에 대한 깊고 격렬한 마음들이 담겨있다. 그들의 화면은 세상보다 좁지만 그 안에는 절규하는 세상이 존재한다. 일부 뛰어난 선배들이 지켜온 사회비판과 자기반성의 마지노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사면에 꽃피운 ‘체제 밖 저항’들이 지금의 중국을 지탱하고 있다.’

4. 작가 소개

루징위엔 卢征远 Lu ZhengYuan



루징위엔 LuZhengYuan

Bottle of Time Series

2011

Oil on Canvas and handmade crystal frame

조소과 출신인 루징위엔은, 사실조각으로 시작하여 천천히 그의 작품 영역과 매체를 조각, 설치, 사진, 영상, 회화로 넓혀갔다. 그는 다양한 작품을 시도하고 있고, 근래에는 일상생활에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의 소재를 삼기 시작했다. 작가의 주관적 배치와 설치,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중 각자의 주관적 해석과 개입이 평행선을 달리는 작업으로, 주체와 타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망에 새로운 의문들을 제시하려 한다.

1981년 중국 대련에서 태어난 루징위엔은 2002년 중앙미술학원 조소과 졸업했다. 학부생 사상 처음으로 옥션에 출품하여 모든 작품을 판매 시켰고, 이후 중국, 대만, 런던, 이태리 등 많은 곳에서 전시를 개최했다. 지도교수이자 중요한 조각가인 수이젠궈가 UCCA에서 기획한 루징위엔 개인전 “84일 84점 작품”은 84일간 매일 작품을 제작하여 매일 전시장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미술계의 호평을 받았다.

마치우샤 马秋莎 Ma QiuSha



마치우샤 Ma QiuSha

From No.4 Pingyuanli to No.4 Tianqiaobeili-1

2007

Video

7m54s

개혁개방 후 중국은 사적, 공적 영역 모두에서 급속히 현대화되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부단히 과거의 생활방식을 삭제해 나가고 있다. 생활의 흔적은 하나하나 지워지고 덮여지며, 우리가 생존하는 공간은 구체성과 시간성을 잃어버리면서, 이 삶 속에 사는 사람간의 관계는 추상적이면서 허무하게 변해져 버린다. 80년대에 태어나고 성장한 마치우샤는, 그녀가 경험한 급변하는 중국사회와 그에 비해 느리게 변해가는 자신의 삶과 기억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1982년 중국 북경에서 태어난 마치우샤는, 중앙미술학원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 알프레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작가는 2002년부터 중국의 안팎에서 컨템포러리전과 영상전, 그리고 영화 페스티벌을 통해 작품을 소개했다. 또한 런던 테이트모던, 뉴욕 페이스갤러리, 서울 갤러리 루프 등에서 열린 기획전에도 참가하였다.

예링한 叶凌翰 Ye LingHan



예링한 Ye LingHan

Last Experimental Flying Object

2008

Watercolor Photograph Video

7m20s

예링한은 영상에 회화적 속성과 조각적 속성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는 작가다. 그는 영상이 가진 리듬감, 터치감, 감성, 질감, 구도에 대해 고민하며 내용을 구상하고, 이미지와 소리를 조화롭게 구성한다. 그는 수채화로 직접 그린 그림과 사진 등을 이용해 영상을 만든다.

예링한의 작품은 미디어적 시선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흩어지며 재구성된다. 직접 그린 수채화를 이어붙이면서 그는 불연속적이고 불확실한 시간 개념을 만들어낸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Last Experimental Flying Object 작품의 배경은 폐허가 된 중국의 한 공장이다. 그 안의 고요함을 깨고 고래가 유유히 공간을 가로지르며 정체 모를 비행선이 공간을 점유하고 빠져나감을 반복하며 초현실적 공간을 형성한다.

1985년에 태어나 2009년 중국 미술학원 벽화과를 졸업한 예링한은, 회화적인 영상작업으로 2010년 "튀중리 미술상", 2011년 "중국 영상작품 30년"전 등 중요 전시를 통해 그의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작가다.

짱쿤쿤 臧坤坤 Zang KunKun



짱쿤쿤 Zang KunKun

Untitled

2012

Oil on canvas

195x86cm

짱쿤쿤은 중국 주택 단지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작품의 오브제로 사용한다. 작가는, 정부에서 동네마다 설치한 이 운동기구들이 시민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권력이 개인의 삶을 육체적으로 길들이고 정서적 요구를 거세하고 완화하는 도구로 간주한다. 그는 정부가 제공한 수 십 종의 운동기구들을 이리저리 조합해 결국에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고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1986년 생 젊은 작가로, 중국 텐진 미술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베이징과 싱가포르에서 두 번의 개인전을 연 신예 작가지만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투홍타오 屠洪涛 Tu HongTao



투홍타오 Tu HongTao

I Come from Accidental

2012

Oil on Canvas

210 x 150cm

투홍타오의 작업실은 중국 남부의 청두에 있다. 근처의 아미산을 자주 오르며, 산 속 풍경들을 그리기를 좋아한다. 화려하고 웅장한 이상적 산수화에서 벗어나, 식물과 자연, 그 속의 동물과 자신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작가는 도시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진 시간과 공간을 추적하며, 공허, 원시림 속에서 느끼는 환상, 허무에 대해 관심이 많다.

1976년 중국 쓰촨성에서 태어난 투홍타오는 1999년 중국미술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거친 붓터치 속에 섬세한 감수성을 녹인 작품으로 이미 잘 알려진 작가다. 쩌우춘야의 뒤를 이어 쓰촨 표현주의의 차세대 주가로 부상한 작가다.

판지엔 潘劍 Pan Jian



판지엔 Pan Jian

All Will be Passed if it Started

2008

Oil on Canvas

250x200cm

70년대 태생 판지엔은 동시대의 중국 회화의 미학적 개념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대표하고 있는 작가다. 그는 인간의 심리,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고 사건들을 풍경화를 통해 표현한다. 작가는 '낯설기화 된 이미지'를 주제 삼아 작품을 하고, 이 '낯설기화 된 이미지'는 이미지가 어떻게 낯설어 졌는지를 보여준다. 즉 이미지와 대상 간의 관계는 결국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표현과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1975년 생 판지엔 작가는, 2001년 중국 서안 미술학원 석사 학위를 마치고, 동 대학에서 교직을 맡고 있다. 그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의 아트 프로젝트와 비엔날레를 통해 작품을 알리기 시작했고, 2008년 개인전 당시, 중국 컨템포러리 3대 컬렉터 중 하나인 Budi Tek이 출품작 30여점을 모두 사들여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오량 郝量 Hao Liang



하오량 Hao Liang

Dissection Series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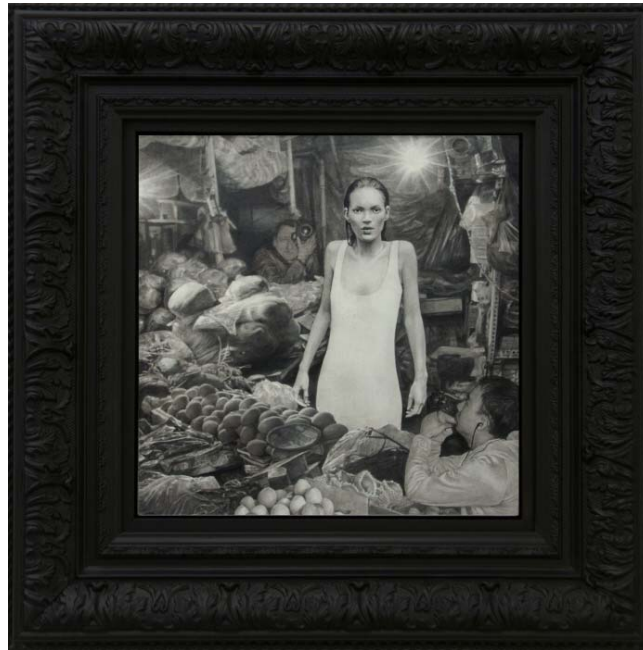
Ink and Color on Silk

17.5x14cm(each)

하오량은 전통 중국화의 테크닉, 특히 중국 송대 작가의 필법을 사용한다. 马远的 수문(물의 문리)와 반변(半边) 풍경 해석법, 李嵩의 담벼락과 해골들, 그리고 꺾어지는 나뭇가지와 꽃들, 심지어 일본 근대의 우끼요에 기법까지 연구한다. 뿐만 아니라 서양의 르네상스와 바로크적 기법과 장식도 사용한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도 않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재해석하고 융합한 것이 그의 작품이다. 동양 고전과 서양적 요소를 접목시키고, 사람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공필 화법과 그만의 투시법을 기준으로, 역량을 넓혀가고 있다.

1983년 생 하오량은, 2006년 쓰촨미술학원 학부 졸업 후, 중국 당대 수묵화가 쉬레이의 지도와 관심을 받으며 2009년 동 대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 금일 미술관 재학생 우수상을 시작으로, 2009년 “뤄중리 상”, 2010년 쉐젠 수묵 비엔날레 등으로 주목 받았다. 중국 현지에서 불고 있는 “복고” 작품의 주축이 된 작가이기도 하다.

황징위엔 黄静远 Huang JingYuan



황징위엔 Huang JingYuan
Gossip from Confuse City 8
2012
Acrylic on paper
55cm x 55cm

중국에서 대학 졸업 후, 캐나다와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2010년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황징위엔은, 여성적 감성과 사회적 비판을 작품 속에 담고 있다. 작은 화면에 대단히 사실적인 회화 작업들은 많은 기획자의 주목을 받으며, 중국 미술의 신예로 부상하고 있다. 귀국 이후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대형 미술 프로젝트와 개인전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다.

<C도시의 그런 일들>은 고도의 사실적인 회화 작품이다. 화면에 보이는 여성은 동서양을 섞어놓은 듯한 괴상한 옷을 입고, 기형적인 포즈와 표정으로 보는 이를 당혹스럽게 한다. 외국에서 건너온 여자의 욕망은 중국 관료사회 형태에 '기생'을 하면서, 성별에 대한 혼란과, 새로운 종족, 권력 그리고 계급이 형성된다.

5. 작가 약력

루정위엔 卢征远 Lu ZhengYuan

1982 중국 다렌 출생
2006 중앙미술학원 학사
2009 중앙미술학원 석사
베이징에서 거주 및 작업

▶ 개인전

2012 <반사: 루정위엔>, 화이트 박스 뮤지엄, 베이징
<루정위엔 온라인 개인전>, HIHEY.com, 베이징
2010 <84 일, 84 작품>, 울렌스 현대미술센터, 베이징
<루정위엔 개인전>, 마렐라 갤러리, 베이징
<51m²:10# 루정위엔>, 타이캉 스페이스, 베이징
2007 <천국>, 에슬릿 갤러리, 타이페이
<정신병원-루정위엔 개인전>, 798 스페이스 갤러리, 베이징

▶ 그룹전

2012 <유희적 저항>, 학교재 갤러리, 서울
<우연한 메세지>, 제 7회 쟈젠 조각 비엔날레, 쟈젠, 중국
<모든 것 - 여섯 번째의 A+ A>, PIFO 갤러리, 베이징
<중국의 조각-중국 조각 전시회>, 중앙미술학원 조각 센터, 베이징
<"시야" 그리고 "명상">, 2012 현대 미술 전시회, 네스트 아트 센터, 청두, 중국
2011 <제 10회 중앙미술학원 실험교육 전>, 중앙미술학원 박물관, 베이징
<새로운 비전 - 포르투갈에서의 중국 현대 미술>, 리스본예술박물관, 리스본, 포르투갈
<지평선에서의 시작 - 1978년부터의 중국 현대 조각>, 시상미술관, 베이징
<청년미술100>, 베이징 지단공원, 베이징; 광저우 진한전람센터, 광저우; 상하이 조각 스페이스, 상하이
<입급까지 길- 이미지의 생성과 불안>, 시대미술관, 베이징
<세이브 아마추어리즘>, 자지아 랩, 베이징
<앞으로 나아가는 예술 - 현대 젊은 작가 전>, 진샹 아트 뮤지엄, 타이위안, 중국
<스크립트>, 징이아트스페이스, 베이징
<끝 없는 변화>, 레드스타 갤러리, 베이징
<발취 - 세 번째 스톨 키퍼 쇼>, C5 아트, 베이징
<생각의 모양과 치수>, 한모 아트 갤러리, 베이징
<당신은 기계가 아닙니다>, 페킨 파인 아트, 베이징
<51m²: 16 신흥 중국 예술가들>, 타이캉 스페이스, 베이징
2010 <불확실한 것의 가능성>, 송쭈양 아트 뮤지엄, 베이징
<진행 중인 작업 : 예술가의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베리아 현대아트센터, 베이징
<빅뱅>, 화이트라잇 갤러리, 시드니
<컨셉션 애즈 엔자임>, A4 현대아트센터, 베이징
<와사비 YCA: 젊은 현대 작가 전시회>, 리 스페이스, 베이징
<더 크게 -공유>, 산리툰 소호, 베이징
<조각>, A4 갤러리, 청두, 중국
<앞으로의 몇 걸음: 젊은 중국 작가 초대전> 메탈 웨어하우스, 크리에이티브 스퀘어 798 아트존, 베이징
<오브젝트-논-오브젝트>, 슐츠 갤러리, 베이징
2009 <재실험 - 지식의 되풀이와 욕망>, 798 현대 미술 페스티벌, 베이징
<조각>, 갤러리 49, 베이징

마치우샤 马秋莎 Ma QiuSha

1982 베이징 출생
2005 중앙미술학원 디지털 미디어학과 졸업
2008 뉴욕 알프레드대 전자 종합예술 석사
베이징 거주 및 작업

▶ 개인전

2009 <마 치우샤>, 베이징 꼬뮌, 베이징
2008 <열정의 양면성: 전자 통합 예술-석사학위청구전>, 포스틱 넬슨 갤러리, 뉴욕
2007 <상자의 우주, 우주의 상자>, 타이강 스페이스, 베이징

▶ 그룹전

2012 <유희적 저항>, 학교재 갤러리, 서울
<얼굴>, 민생 아트 뮤지엄, 상하이
2011 <초유기체 중앙미술학원 미술관 비엔날레 2011>, 중앙미술학원 미술관, 베이징
<붕괴: 2011 아트 창사>, 후난 프로빈셜 박물관, 창사, 중국
<소프트 머신>, 페이스 갤러리, 뉴욕
<건설 서식>, 베이징 꼬뮌, 베이징
<51m²:16 영 아티스트>, 타이강 스페이스, 베이징
2010 <위대한 공연>, 페이스 베이징, 베이징
<노 소울 포 세일>, 테이트 모던, 런던
<뮤(幕) : 스크린 -중국 비디오 아트 3세대>, UTS 갤러리, 시드니
<무브 온 아시아 2010>, 대안공간 루프, 서울
<7인의 젊은 아티스트>, 베이징 꼬뮌, 베이징
2009 <진행 중인 작업: 미술가는 어떻게 작업하는가?>, 이베리아 현대아트센터, 베이징
<2009 타임 - 베이스드 아트 페스티벌>, 포틀랜드 현대예술협회, 포틀랜드, 미국
<사적인 공간: 24HR 아트>, 노던 테리토리 현대 미술 센터, 다윈, 호주
<2008-2009 제 1회 연간 세 개의 그림자 사진 수상전>, 세 개의 그림자 사진 아트 센터, 베이징
2008 <마켓: 60명의 젊은 예술가들의 새해 선물>, 베이징 리케이션 쿼터 아트센터, 베이징
<랜즈스케이프 토폴로지>, 마지 갤러리, 베이징; 마드리드
<음식의 묘사(또는 이것의 부재)>, 월시 갤러리, 시카고
<숨겨진 생활: 아파트 다이어리>, 린 & 캔 갤러리, 베이징
<메커니즘 오가니즘>, A9 스페이스, 베이징
2007 <리프레쉬: 신진 중국 작가>, 상하이 젠다이 현대 미술관, 상하이
<리프레쉬: 신진 중국 작가>, 아라리오 베이징, 베이징
<경계가 없는: 현대 미술전>, 성화 아트 센터, 난징, 중국
<남부 60초 비디오 페스티벌>, 내쉬빌, 미국
2006 <2006 여성 영상 제작의 물결 페스티벌>, 타이페이
<제 35회 국제 로테르담 영화제>, 로테르담, 네덜란드
2005 <베이징 도큐멘타: 대량생산>, 베이징
<920 킬로그램>, 상하이 두오룬 현대 미술관, 상하이
<미래의 고고학: 제 2회 중국미술 트리엔날레>, 난징박물관, 난징, 중국
2004 <자동 판매기: 현대 미술 전시>, 쑤저우 조형 기술 학원, 쑤저우, 중국
<선택: 동시대 중국 독립 비디오전>, 차이훙츠어 바, 베이징
<제 3회 창사 현대미술전>, 창사, 중국
<플랑크톤 모던 뮤쥬얼 이미지전>, 베이징
2002 <제 1회 대학생 DV 전>, 베이징

예링한 叶凌翰 Ye LingHan

1985 중국 리수이, 저장 출생

2009 중국미술학원 졸업

상하이 거주 및 작업

▶ 그룹전

- 2012 <유희적 저항>, 학교재 갤러리, 서울
- 2011 <스펙트럼 : 중국 독립 애니메이션>, A4 현대 미술 센터, 청두
<중국의 움직이는 이미지 :1988-2011>, 민생 아트 뮤지엄, 상하이
<최면>, 아더 갤러리, 베이징
<밤 낮으로>, 티오피 이벤트, 상하이
<윤랭 프로젝트>, 델라르코 갤러리, 상하이
<+ 팔로우>, 상하이 현대 미술관, 상하이
<접혀진 판>, 밍 위안 아트센터, 상하이
<하우 투 두>, 홍루 박물관, 항저우
- 2010 <떠다니는 구름>, 델라르코 갤러리, 상하이
<마음의 반영>, 상하이 현대 미술관, 상하이
<리안 주앙 다리>, 바오쉬디 뮤지엄, 항저우
<흘러가는 시간의 무게>,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D-No3>, 비디오 아트 전시회, 베이징
<라이트 업>, 소카 아트 센터, 타이베이
<청춘판매점>, 페킨 파인 아트, 베이징
<일곱 개의 꿈>, 팡시양 아트 센터, 항저우
<역사의 재편>, 금일미술관, 베이징
<영화를 통해 찾다>, 허샹닝 아트 뮤지엄, 쉐첸, 중국
<작은 프로덕션 이벤트>, 상하이
<그레이 스케일>, 아더 갤러리, 베이징
<연소되는 젊음>, 항저우
- 2009 <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요코하마 2009>, 요코하마
<퓨처-투게더>, 아라리오 갤러리, 베이징
<블랙 보드>, 상아트 갤러리, 상하이
- 2008 <포스트 24 애니메이션>, 상하이
<안전 우선>, 페이 현대 미술 센터, 상하이
- 2007 <아마추어 월드>, 플랫폼 중국 현대 미술 연구소, 베이징
- 2006 <선물>, 로프트49, 항저우

장쿤쿤 臧坤坤 Zang KunKun

1986 칭다오 산둥성 출생
2008 텐진미술학원 졸업
현재 베이징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2 <브라운>, 린다 갤러리, 싱가포르
2010 <리얼리스트틱 라디안>, 린다 갤러리, 베이징
2007 <현재에 가려진 - 자아>, 텐진 미술관, 텐진

▶그룹전

2012 <유희적 저항>, 학교재 갤러리, 서울
<아트 스테이지 싱가포르 - 프로젝트 스테이지(햇 하우스)>, 마리나베이 샌즈 컨벤션, 싱가포르
<반도화 - 증상 >, 이베리아 아트 센터, 베이징
<구조 후 : 젊음과 자유로움의 욕망과 사랑>, 798 스페이스, 베이징
<스트리핑 : 중국으로부터의 신예술>, 종 갤러리, 베를린
2011 <일곱 가지 방법 - 이미지 메이킹과 그것의 불만족>, 시대 미술관, 베이징
2010 <역사의 재편- 중국신진작가초대전>, 금일 미술관, 베이징
2009 <시간 지연>, 린다 갤러리, 베이징
<리믹스와 공유>, 인터 아트 센터, 베이징
2008 <중국현대미술의 18가지 교육법>, 항저우, 중국
<세 개의 시선>, 텐진, 중국
2007 <국립대학학생>, 금일 미술관, 베이징
<중국 - 독일 예술가 통합전>, 텐진, 중국
2005 <두 아트 투데이>, 텐진, 중국

▶수상 및 기금

2008 차이진 장학금
2006 차이진 장학금
2005 차이진 장학금

▶소장

상하이 미술관, 상하이
싱가폴 현대미술박물관, 싱가포르
올리 시그

투홍타오 屠洪涛 Tu HongTao

1976 중국 청두 출생
1999 중앙미술학원 서양화과 졸업, 베이징
청두와 베이징에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1 <식물의 욕망>, 이베리아 아트 센터, 베이징
2008 <메이즈 페이스>, 중국 현대 갤러리, 뉴욕
<환영의 파라다이스>, 마지 아트 갤러리, 마드리드
2007 <탐구>, 올리비아 오리엔탈 갤러리, 런던
<인터페이스>, 소카 아트 센터, 베이징

▶그룹전

2012 <유희적 저항>, 학교재 갤러리, 서울
2011 <중국의 캘리그래피>, 금일 미술관, 베이징
<부채하기 위한 길은 없다>, 센츄리 시티 엑스포 센터, 청두, 중국
<순수한 시각과 풍경>, 아시아 아트 뮤지엄, 샌프란시스코
2010 <역사의 개혁>, 중국 국제 엑스포 센터, 베이징
<필터 윈도우>, 비욘드 아트 스페이스, 베이징
<관란지봉 다이어리: 창조와 오피스컬럼전>, 노블 아트 컬렉션 클럽, 상하이
2009 <프라하 비엔날레 - 중국 박스>, 프라하
<방언의 개성>, 블루 루프 아트 뮤지엄, 청두, 중국
<진행 중인 작업: 미술가는 어떻게 작업하는가?>, 이베리아 현대 아트 센터, 베이징
<생각>느낌?>, 금일 미술관, 베이징
2008 <랜드스케이프 토폴로지>, 마지 아트 갤러리, 베이징
<시간 지연: 중국 현대 미술의 새로운 힘>, 마지 아트 갤러리, 마드리드
<디지털+사진 시간에서의 회화와 조각>, No.10 갤러리, 청두, 중국
<욕망의 이미지>, 쑤저우 박물관, 쑤저우, 중국
2007 <블루하우스에서의 3년>, 블루하우스 아트 센터, 청두, 중국
<남서부로부터의 시작>, 광저우 미술관, 광저우
<어디로>, 홍콩대학교 박물관, 홍콩
<욕망의 이미지>, 송주양 뮤지엄, 베이징
<아니마믹스: 근대부터 영원까지>, 상하이현대미술관, 상하이
2006 <픽션 러브>, 상하이현대미술관, 상하이
<허허실실>, 헤이리 미술 재단, 파주
<정도의 지나침- 새로운 중국 회화>, 난징 스퀘어 현대미술갤러리, 난징, 중국
<다양한 이미지>, 상하이 미술관, 상하이
<리안 창 췌: 도시의 시각적 창조성>, 젠다이 현대 미술관, 상하이
2005 <청두 생활: 현대 유화전>, 현대 미술관, 청두, 중국
<베이징 위의 하늘 아래>, 이징쉬엔 갤러리, 베이징
<투홍타오와 우지안준 전시회>, 소카 컨템포러리 스페이스, 베이징
2004 <청두 생활: 센젠 현대 유화전>, 센젠 미술관, 센젠, 중국
2001 <상하좌우>, 현대 미술관, 청두, 중국

판지엔 潘劍 Pan Jian

1975 중국 시안 출생
2001 시안미술학원 서양화과 졸업
베이징과 시안에 거주 및 작업

▶ 개인전

2010 <기묘한 이미지전>, 금일 미술관, 베이징
2008 <세상의 끝>, 베이징 스페이스, 베이징

▶ 그룹전

2012 <유회적 저항>, 학교재 갤러리, 서울
2011 <청두비엔날레>, 청두음악공원, 쓰촨, 중국
<철골업자>, 베이징 소카아트센터, 베이징
<순수한 관점-새로운 중국 회화>, 아시안아트뮤지엄, 샌프란시스코
2010 <순수한 관점-새로운 중국 회화>, LBF 재단, 런던
<“협상” 제 2회 금일 다큐전>, 금일 미술관, 베이징
<업스테어즈 인 유스(Upstairs in the Youth)- 젊은 비평가 후보작 전시회>, 시대미술관, 베이징
<역사의 재편- 중국 젊은 작가 초대전>, 아라리오 갤러리, 베이징
2009 <현실의 관찰>, 조이아트 갤러리, 베이징
<리싸오징과 판지엔 공동전>, 유즈 뮤지엄, 자카르타
2008 <사랑스런 꽃과 보름달 - 중국 현대 미술의 유즈 컬렉션>, 유즈 뮤지엄, 자카르타
<두 도시 이야기>, 베이징 스페이스, 베이징
<독특한 풍경>, 3818 쿨 갤러리, 베이징
<현대미술 다큐전- 주목받는 신예전>, 월 아트 뮤지엄, 베이징
2006 <색다른 풍경>, 하이랜드 갤러리, 베이징
2004 <중국의 새로운 비전 - 중국 현대 젊은 작가 그룹전>, 상하이 국제엑스포센터, 상하이
2003 <제 3회 중국 유화 전시회>, 중국국립미술관, 베이징
2002 <리얼리즘의 분해- 현대미술전>, 업리버로프트 갤러리, 쿤밍, 중국

▶ 소장

율리 시그, 스위스
드야오 유, 인도네시아
홍시우 링, 인도네시아
피에르 위버, 스위스

하오량 郝量 Hao Liang

1983 중국 스완성 청두 출생
2006 스완미술학원 중국화 학사
2009 스완미술학원 중국화 석사
베이징 거주 및 작업

▶ 개인전

2011 <네스트 이미지 하오량 전>, 마이헴블하우스 아트 갤러리, 타이페이

▶ 단체전

2012 <유희적 저항>, 학교재 갤러리, 서울
<멀티레이어드 2012 중국 현대 공필화 추천전>, 상하이 미술관, 상하이
<중국문인>, 홀러빌딩, 뉴욕

2011 <마음 스케치>, 베이징스페이스 갤러리, 베이징
<폴리포니-슈퍼스타 청년작가전>, 후아산 크리에이티브 파크, 타이페이
<무한 : 베이징 회화 - 젊은 수묵화가 초대전>, 클래식 베이징, 베이징
<독립선언>, 금일 미술관, 베이징
<육망의 : 병리학파 관찰>, A4 현대미술 아트센터, 청두, 중국
<호메이_국내 유명 작가 회화전>, 스완성 미술관, 청두, 중국
<수확_딜러의 선택>, 아우라 갤러리, 베이징

2010 <제 7회 센젠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 센젠 화원, 구안산유예 미술관; OCT 아트 앤 디자인 갤러리, 센젠, 중국
<마이 헴블 하우스 2010-신진작가전>, 마이헴블하우스 아트 갤러리, 타이페이
<트리오 에테르나>, 편 아트 스페이스, 베이징
<관점 바꾸기 공비아트 중국현대미술 노미네이션전>, 시대 미술관, 베이징

2009 <베이징 너머에서 온 새로운 예술>, 홍문 갤러리, 베이징
<도시의 음유시인>, 천고원 예술공간, 충칭, 중국
<뤄중리 장학 단체전>, 충칭미술관, 충칭, 중국

2008 <스냅샷-중국 현대신수묵화전-스완미술학원 작가전>, 홍콩중앙도서관, 홍콩
<금일미술관 대학 노미네이션전>, 금일 미술관, 베이징
<제 1회 트라이히드런 아트 그룹전 : 나는 순회하고있다>, 현대미술박물관 501, 충칭, 중국
<포스트 트래디셔널 : 현대미술 4인전>,아트+ 갤러리, 상하이
<08·80: 80년대 아방가르드 예술가 합동전>, 아트 살롱, 상하이
<스완미술학원 - 광저우 미술학원 석사과정 교류전>, 스완미술학원, 광저우 미술학원, 충칭; 광저우

2005 <마리 장학기금 수상전>, 충칭, 중국

▶ 수상 및 기금

2010 뤼중리 펠로우쉽 수상
2008 동상, <금일미술관 대학 노미네이션전>, 금일 미술관, 베이징
2004 마리 장학기금 수상

▶ 작품 소장

금일 미술관, 베이징

황징위엔 黄静远 Huang JingYuan

2008 시카고예술대학교 미술학 석사, 시카고

2005 퀸커디어대학교 미술학 학사, 몬트리올

베이징 거주 및 작업

▶ 개인전

2012 <도시의 그 무언가>, 라티튜드 53, 앨버타, 캐나다

2011 <불편한 이주>, 오보로 갤러리, 몬트리올
<신작>, 아우라갤러리, 베이징

2010 <유닛 원>, 피클드 아트센터, 베이징

2009 <불편한 이주>, 뷔 쿨투어, 베를린
<불편한 이주>, A1C 갤러리, 뉴펀들랜드, 캐나다

2008 <불편한 이주>, 아르니카아티스트런센터, 캠퍼프스, 캐나다

2007 <시대착오>, 드러먼드빌 문화센터, 퀘벡, 캐나다

2006 <시대착오>, 갤러리 SAS, 몬트리올

▶ 단체전

2012 <유희적 저항>, 학교재 갤러리, 서울
<공자 도시>, 포스갤러리, 베이징

2011 <젊은 작가 초대전>, 포스갤러리, 베이징
<제2회 중국 당대 판화전>, 금일 미술관, 베이징

2010 <사랑과 처벌>, 아우라 갤러리, 베이징

2009 콜린스 르페브르 앤 스톤버저 갤러리, 몬트리올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 모던퓨어 갤러리, 킹스턴, 캐나다
<공간과 기억>, 에이스페이스, 토론토

2008 <작은 것들>, 콜린스 르페브르 앤 스톤버저 갤러리, 몬트리올
<필드>, 베이징 상원예술관, 베이징

2007 콜린스 르페브르 앤 스톤버저 갤러리, 몬트리올

2006 <보물찾기>, C5와 협력, 바르셀로나

2005 <한지 위의 파괴>, 갤러리 루즈, 몬트리올
<분열, 분리>, 몬트리올